

을 추석에는 온 가족이 TV 앞을 탈출하자.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물론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꼭 쟁겨야 할 전시들이 유난히도 많다. 또 박물관 등에서 준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과 남은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넉넉한 연휴, 볼거리 천지

우리 문화의 DNA 숨 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백년되어 고향에 돌아온 김환기 화백과의 만남

사물놀이·대금연주 신명나는 공연에 체험마당도

문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음껏 즐기기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쉬워졌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고 즐기고, 감탄하면 된다. 한마디로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기기에 '딱'이다.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으면 추석 연휴 내내 열리는 콘서트도 덩어로 만날 수 있다.

전시장 입구부터가 가족 놀이터다. 비엔날레 야외공간이 나무 팔레트와 플라스틱 박스 등으로 만든 정원으로 변신했다.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벼, 갯, 양배추, 당근, 콩 등 수심여가지 채소가 장식된 정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흙을 만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바로 옆 화덕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 빵을 만드는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자녀들에게 우리 것의 '멋'과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대나무 소쿠리와 부채, 키 등으로 꾸며진 주제관 'OLD & NEW'는 우리 문화의 DNA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2층 2전시관에 마련된 '밥술과 자전거의 진화'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밥술과 자전거의 진화 과정을 통해 디자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로 디자이너가 광주 은혜학교, 서울 은평대학교 교재 학생 22명과 함께 꾸민 'Growing Dreams' 코너는 전시를 보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다.

이밖에도 스포츠 용품과 디자인, 아시아 각국의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18~22일) 콘서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타악그룹 열수, 광주팝스오케스트라, 한울민요춤아리, 교육극단 파랑새, 로보캄보밴드, 창곡프로젝트 소리치다 팀 등이 펼치는 국악, 세미클래식, 인형극, 창곡을 즐길 수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전 'OLD & NEW'.

◇김환기전 마지막 관람 기회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신안 출신으로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 '김환기, 백년되어 고향에 돌아오다'전을 관람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김환기 화백의 작품과 전시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인 전면 점화작품 다수를 포함해 종이 유화, 달 향아리 시리즈, 초기 드로잉 등 모두 8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추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순백의 기록-광주·전남 사진의 토대를 보다'전도 미술관 5·6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광주·전남 사진의 출발지점인 194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역사적 사건들, 생활 풍물 등을 다뤄낸 리적으로 기록한 사진과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은 작품들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연휴기간(18~22일)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열기로 했다.



한가위 송편 만들기 체험행사.

◇박물관에서는 전통 놀이

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전통문화관에는 다채로운 민속 문화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연휴 기간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송편 만들기,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딱지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함께 농악, 사물놀이, 대금 연주 등 신명나는 민속공연이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박물관 교육관 앞과 대강당에서 추석 전통놀이 체험, 영화 상영 등 행사가 진행된다.

동구 율리동 무등산 자락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도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 개최된다. 21일 오후 3시에는 '꼭두'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통창극 '한가위 가족 국악 뮤지컬'이 무대로 오르고, 22일 오후 3시에는 대금 독주, 가야금 병창 등 국악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농업박물관에서 선조들의 삶을 만나요

체험

지난 7월 개관 20주년을 맞아 재개관한 전남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추석 연휴기간(18~22일)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물관은 농경문화체험관에서 투호를 비롯한 윷놀이, 승경도 놀이, 널뛰기, 고리걸이,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재개관한 본관(농경문화관) 전시실도 정상운영된다.

재개관한 농경문화관은 '영원한 인류의 생명창조 농업'을 주제로 농경역사실, 농경사계실, 공동체문화실 등 3개 전시로 구성,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해 새롭게 단장됐다.

농경역사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 발달사를 시대 순으로 전시해, 한반도 농경의 시작부터 다양한 농기구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농경사계실에서는 옛 농촌의 풍경과 사계절 농경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공동체 문화실은 농경문화와 관련한 각종 노동과 신앙, 놀이문화 등으로 조상들의 삶을 조명, 조상들의 삶에 깃든 지혜와 여유를 엿볼 수 있다.

김우성 관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민속 체험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061-462-2796~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메밀꽃·상사화... 꽃천지 향기 속에 사랑가득 행복가득

축제

▲2013 선화동 메밀꽃 축제(9월 19~21일)

장흥군 회진면 산저마을은 행정지명 대신 '선화동(仙鶴洞)'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은 소설가 이청준의 '선화동 나그네'의 작품 무대가 된 곳이다. 임권택 감독은 이 소설을 원작으로 자신의 100번째 연출작품인 '천년화'를 만들었다.

마을주민들은 20ha(7만평)의 비탈진 다락밭에 봄철에는 유채, 가을철에는 메밀을 심어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은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경관 우수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란만 바다와 '소금을 뿌린듯' 새하얀 메밀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답다.

▲함평·영광 꽃무릇(상사화) 큰잔치(9월 20~22일)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꽃무릇은 가녀린 연초록 꽃대 끝에서 유난히 짙은 선홍빛 꽃잎이 피어난다. 꽃이 진 후에야 잎이 돌아오는 특성때문에 결코 만날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온다.

불갑산에 사이에 둔 함평 용천사와 영광 불갑사, 고향 선운사 등 3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무릇 군락지이다.

함평은 20~21일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 공원에서, 영광은 20~22일 불갑산 관광지 구에서 별도로 축제를 개최한다.

▲제11회 겸면 목화축제(9월 20~21일)

유년시절 목화밭에서 달익은 다래를 따 먹어본 적이 있나요? 1363년 고려 말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서 북대륙에 목화씨앗을 숨겨 들여와 재배되기 시작했으나 지금

장흥 선화동 메밀꽃

'메밀꽃 필 무렵' 주인공처럼

함평·영광 꽃무릇

사랑을 그리워하며 가을산책

곡성 겸면 목화

어릴적 따 먹어본 다래의 추억



목화



상사화

은 민화사업의 쇠퇴로 우리 주변에서 목화꽃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곡성 겸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목화가 재배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축제는 겸면 목화공원 일대에서 목화따기를 비롯해 목화다래 미니 골프치기 체험, 면실유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등 목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전시·관람·체험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송기통기자 song@kwangju.co.kr

장흥 산저마을 메밀밭

